



이달의 인터뷰

양은선 감시원 · 김순이 감시원

오리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소비자가 앞장선다!

오리고기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된 김순이 · 양은선 감시원(소비자 시민모임)



양은선 감시원



김순이 감시원

2010년 8월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발생한 시로 인해 오리고기 수급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리가격이 상승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와 대만산 냉동오리의 수입량이 증가, 값싼 수입 오리고기를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내 오리산업을 스스로 지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5월 25일, 오리고기 유통 감시단을 발족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된 김순이 · 양은선씨는 소비자 시민모임 회원으로 오리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서울, 경기를 집중적으로 홍보 · 감시하면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부정유통을 감시함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판매점 출입 시 명예감시원증을 제시, 방문목적을 밝히고 감시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임무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오리고기 부정유통 사례를 막는 이들의 활동은 소비자와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오리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의 역할이다. 평소 자발적으로 소비자 시민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순이 · 양은선씨를 본지에서 만나봤다.(인터뷰 질의는 가나다순)

Q. 오리고기 전임 유통감시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A. [김순이] 평소 관심 분야인 농축수산물 관련 일을 맡아 활동을 한다는데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오리 원산지 위반 점검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 및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부정 유통을 개선하는데 오리협회 회원님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A. [양은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위주의 원산지표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산 오리고기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는 다른 축종보다 느즈막히 출발하여 시민들의 인식에 아직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해 수입산 오리고기의 국내산둔갑을 막고, 깨끗하고 신선한 오리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수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유통감시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감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는 양은선감시원

Q. 오리고기 전임 유통감시원이란 무엇이죠?

A. [김순이] 오리고기 표시사항 위반과 불법유통 및 둔갑판 매 등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 정착과 부정유통을 감시하여 오리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바른 먹을거리를 선도하는데 일원이 된 것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A. [양은선]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의 건전한 정착과 수입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차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오리산업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맛 좋고 우수한 국내산 오리고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오리고기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A. [김순이] 제가 먼저 말하면 될까요?(웃음) 우선, 100㎡ 이하 음식점인 경우 메뉴판과 게시판 중에 메뉴판에만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100㎡ 이상 사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 표시를 의무 해야 하죠. 또한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시 둘 다 표기를 해야

합니다. ex) 국내산 표기 시 : 오리백숙(오리고기 국내산), 오리훈제(오리고기 중국산), 혼합 시: 오리로스(오리고기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A. [양은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오리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구이, 탕, 찜, 튀김,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오리요리대상으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기해야하죠. 음식명 글자크기의 1/2 이상으로요.

Q. 음식점의 원산지 대상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공통]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가지 였는데 2010년 8월 11일부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까지 추가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등에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Q. 주요 활동지역과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김순이]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월 단위 유통감시활동 계획을 세워 음식점과 유통업소를 방문하여 대표자

이달의 인터뷰

양은선 감시원 · 김순이 감시원

또는 관리책임자를 만나서 방문취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감시원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웃음) 먼저, 오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확인하고 원산지별, 판매단위별 판매 가격을 조사하죠. 그리고 종사자의 위생교육 수료 여부 및 기간 점검, 일별 위생점검일지 작성 및 오리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6개월 이상 보관했는지 여부와 유통업소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또 식육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비치하는지 등을 살피고 이를 홍보하고 있어요. 길쭉? 숨이 가쁘네요(웃음) 그리고 계도 활동 후에는 간판 또는 내부진열장 등을 사진 촬영하고 매월 말일 오리협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반 우려가 있거나 활동 시 의심이 가는 곳 등은 1차 부적합 시 15일 경과 후 2차, 3차까지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 [양은선] 활동지역은 시·도지회 단위로 구분하되 감시활동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업소를 당월 내 활동 한 곳이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죠.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를 찾아가 한 발 한 발 발로 뛰며 협회에서 제작한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유인물을 나눠 드리면서 활동취지와 원산지표기가 잘되어 있는지 기타감시를 합니다. 그 후 업소간판 사진을 찍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다른 업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품을 팔기 때문에 매일 많은 곳을 다니지는 못하지만 한 곳이라도 더 홍보하

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원산지 표기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식당주인과 1:1로 마주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Q. 오리고기 부정유통을 감시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느낀 점이 있다면?

A. [김순이] 오리고기 유통감시원을 하게 된 초반, 오리 음식 점이 유통인구가 많은 변화가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 다녔습니다. 결국 몇 군데 찾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 온 기억이 있어요. 오리백숙이나 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사전예약이 필요하죠. 막상 오리고기 집은 가족단위나 주택가 근처에 더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업자들이 오리고기 수입산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자에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오리를 속고 구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A. [양은선] 요식업소나 유통업소를 방문해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원산지표기 홍보가 비교적 잘되어 있지만, 오리고기는 잘 모르거나 아예 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처음 요식업소를 방문하면 불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산지 표기방법과 거래명세표 보관방법, 원산지미표시나 허위표시로 인한 과태료



▲ 오리고기 원산지 감시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양은선감시원



▲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양은선감시원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면 막상 갈 때는 오리고기 원산지 표기 홍보사항에 대해 대단히 고마워합니다. 덕분에 활동하는 저 또한 뿌듯하고 유통감시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임무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Q. 소비자시민 모임이란 어떤 단체인가요?

A. [김순이] 소비자시민의모임은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하여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하며 소비자고발상담, 캠페인,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허위 과대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식품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지속 가능한 소비 환경을 위한 소비자 문제 세미나와 교육 등을 합니다. 저는 식품기술사에 도전하려고 하던 중 구청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동을 해오다가 평소 관심이 있던 소비자시민의모임 회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교육 후에 1회용품환경건설턴트 활동 및 2010년 청소년 음주, 흡연 캠페인 활동, TV드라마모니터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 [양은선] 소비자시민의 모임은 한마디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는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해 이루어지죠. 1982년 11월에 창립되었고 비영리적, 비정치적 전문 소비자 단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010년도에는 석유시장 감시단으로 활동했고, TV드라마 모니터링(음주장면이나, 대중교통 이용실태 에너지 과다사용등) 활동과 청소년 음주 흡연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흡소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Q. 오리고기 전임 유통감시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들려주세요

A. [김순이]오리 원산지, 부정 식품 감시 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실현해 가는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로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 [양은선] 유통감시원으로서 오리고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 오리고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산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을 막고 올바른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지고 깨끗하고 신선한 오리고기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않는 자세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메뉴판을 확인하고 있는 김순이감시원



▲ 오리고기 원산지표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김순이감시원



▲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김순이감시원